

왜 죽음충동¹⁾의 징후를 부사구²⁾에서 찾는가

임 병식(싸나톨로지스트 · 철학박사, 의학박사)

drlimroh@daum.net

<본 강좌의 변>

현재 수많은 자살예방정책과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개인이 맞닥뜨리는 ‘말할 수 없음의 자리’, 즉 언어 이전의 고통에 접근하는 방식은 여전히 부재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죽음학은 정면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자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말해지지 않는 경험의 압축된 구조다. 많은 이들이 “살아야 한다”는 당위명제보다 먼저, 살 수 없었던 **실존적 상황**을 지나고 있었다. 말하려 했으나 말할

- 1) 프로이트의 충동(Trieb)과 라캉의 충동(Trieb)은 이름은 같지만 작동 방식, 발생 원리, 대상의 성격, 임상적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두 학자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면, 프로이트는 ‘생물학적·심리적 에너지 모델’, 라캉은 ‘언어적·기표적 회로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충동(Trieb)은 “신체적 흥분이 심리적 표현으로 번역된 것”이다. 프로이트 충동의 핵심 특징은 먼저 1)신체적 근원(Quelle)에 있다. 즉 그에게 있어서 ①충동은 신체 기관의 긴장에서 출발 ⇒ ②몸은 충동의 ‘물질적 원천’ ⇒ ③심리는 이 신체적 흥분을 “표상·표상내용(Repräsentanz)”으로 번역할 뿐이다. 2)충동의 목적(Ziel)은 ①긴장 해소에 있다. ⇒ ②충동의 목표는 “긴장 감소(Entspannung)”이다. ⇒ ③충동은 항상 소멸을 향한 방향성을 가진다 예: 먹고 싶다 → 먹음 → 긴장 감소. 3)그 대상(Objekt)은 우연적·대체 가능하다. 즉 충동을 해소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생물학적 목표에 도달하는 도구이다. 4)에너지 모델의 리비도는 경제학(Economic) 개념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충동은 “흐르는 힘, 압력, 양” 등으로 설명된다. 5)충동은 ‘본능(instinct)’과 유사하나 더 복잡한 심리적 번역을 포함한다. 즉 본능은 = 생물학적 프로그램이지만, 충동은 = 본능 + 심리적 표상(의 번역)이다. 즉, 프로이트에게 충동은 ‘신체적 흥분(자극)’이 ‘심리적 요구’로 변환된 것 = 생물학적 ‘압력’을 줄이기 위한 본능-심리의 연속적 흐름이다. 반면에 라캉의 충동(Trieb)은 “기표의 회로에서 길을 잃은 향유의 순환”이다. 라캉은 프로이트의 충동 개념을 언어·기호학적 구조로 재해석했다. 즉 그에게 있어서 충동(Trieb)은 “기표의 회로에서 길을 잃은 향유의 순환”이다. 라캉이 해석한 충동은 1)신체가 아니라 ‘기표의 회로’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①충동은 몸의 흥분이 아니다. ⇒ 충동은 기표(S1-S2)의 끊김, 결여, 우회, 반복에서 생긴다. ⇒ ③“A라는 이미지가 B라는 이미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생긴 흔들림”이다. 2)목적은 해소가 아니라 ‘되돌아옴’이다. ①충동은 직선적 완결이 없다 ⇒ ②충동은 항상 “목표를 빗겨가며 돌아오는 우회”로 작동한다 ⇒ 라캉이 말한 충동의 공식, “목적은 대상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회로 자체의 향유(jouissance)” 3)대상은 ‘대상 a’ - 결핍의 표지이다. ①충동의 대상은 실재적 사물 X가 아니라, 결코 잡히지 않는 결여의 흔적(a-object)이다. ②충동은 결여를 향유하는 구조다. 4)경제학이 아니라 ‘향유 윤리학’이다. 즉 ①충동은 힘·압력·양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 ②충동은 기표의 실패·언어의 균열에서 발생하는 실재적 과잉이다. 5)충동은 본능이 아니라 ‘언어적 오작동’이다. 즉 ①“언어가 시작되는 순간 충동이 생긴다” ⇒ ②충동은 신체 본능의 잔여가 아니라, 언어가 신체를 뚫고 들어오며 생긴 잔여물(pulsion)이다. 즉 라캉에게 충동은 ‘기표의 회로가 우회하며 남긴 향유의 파편’ = 언어 구조의 “부정성(결여·대타자 부재)”에서 생긴 것이다.
- 2) 부사구는 단순한 문장 장식이 아니라, 말하는 이가 자기 감정을 숨기거나 완곡하게 드러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언어적 피난처이다. 의식적 언어가 주어(主語)와 명사(名詞)를 통해 세계를 서술한다면, 무의식은 부사구를 통해 “말하지 못한 태도, 감정의 방향, 고백의 망설임”을 드러낸다. 따라서 부사구는 억압과 검열을 우회하여 무의식을 발화하는 통로로 기능한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는 더 이상 의미를 전달하는 추상적 도구가 아니라, 상처와 고백, 갈등과 망설임, 그리고 숨어 있는 회복의 가능성을 품은 실존의 매체로 전환된다.

수 없었던 감정,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으나 요청이 가로막힌 위치, ‘지금 여기’가 더 이상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는 심리적 지층. 죽음학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은 “부정성의 과잉(negativity)”이 한 인간의 말과 몸을 잠식하는 과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은 ‘죽음학’에서 제시하는 부정성(negativity) 개념을 통해 자살충동을 기존의 병리적 범주가 아니라 “살 수 없음을 말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발생하는 실존적 상황성의 균열로 해석하는 데 있다.

자살 위기는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기 어려움을 말할 언어가 부재한 상태”에서 비롯된다. 즉, 자살은 침묵과 공백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붕괴의 표현이며,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선 행동기반 교육이나 단순 상담을 넘어 언어 이전의 감응 회복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살을 선택한 이들의 사연을 늘 뒤늦게 듣는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흔적은 대부분 **말하지 못한 말의 잔향**이다. 이 잔향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사회가 갖추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감수성**이다.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의 의지를 논하기보다, 그가 어떤 세계에서 버티고 있었는지를 듣는 것으로 옮겨져야 한다.

자살 예방의 핵심은 그래서 상담실 안이 아니라 **일상 속 관계**에 있다. 무심코 건네는 한 문장, 툭 던진 안부, 그저 옆에 있어 주는 조용한 동행. 이 작은 움직임들은 상대의 실존적 상황을 다시 지탱하는 힘이 된다.

죽음학은 말한다.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살리는 존재들이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위로가 아니라, 그가 “**살아도 되는 상황**”을 함께 만들어 주는 우리의 작은 감응이다. 지금, 누군가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을 용기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다.

I. 서론

자살은 단순한 심리적 증상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느끼는 **실존적 막힘(Entrapment of Being)**의 현상이다.³⁾ 프로이트가 말한 죽음충동(Thanatos)은 자기파괴를 향한 본능이라기보다, ‘의미의 붕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무의식적 충동의 변형이다. 이때 자살충동은 ‘죽고 싶다’의 표면적 진술보다, “이대로는 견딜 수 없다”는 **상황적·구조적 한계감**으로 나타난다.⁴⁾

3) 임병식(2025). 「베르그송-후설과-프로이트-EPLA 통합 위상학에 기반한 실존상황성 분석과 자살예방의 이론적 모형 연구」, 『Chat-GPT시대, 자살충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싸나톨로지협회 학술대회 자료집, 참조.

4) 죽음학에서 말하는 **실존적 상황의 이론적 구조**는 하이데거의 ‘**상황성(Befindlichkeit)**’ 야스퍼스의 ‘**한계상황(Grenzsituation)**’, 샤이드먼(Shneidman)의 ‘**Psychache**’와 실존의 통증에 기반한다. 하이데거에게 인간 실존은 “**던져져 있음(throwness)**”의 상황 안에서만 파악된다. 그는 인간이 먼저 존재하고 나중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상황 안에 “**던져진 채로** 의미를 해석하며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 상황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감정, 관계, 언어, 시간의 모든 조건을 함께 규정하는 **존재적 장(場)**이다. 자살자는 이 장 전체가 더 이상 “지탱되지 않는다”고 느끼며, 그 감각은 ‘무의미·

죽음학의 부정성은 이 지점을 실존적으로 해석한다. 죽음의 부정성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삶을 성찰하게 하는 “자기-무화의 계기”이다. 따라서 자살 예방의 핵심은 충동의 억제나 증상의 관리가 아니라, 그 부정성이 내포한 실존적 질문을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⁵⁾ 이 글에서는 자살 예방이 지닌 문제를 근본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죽음학의 부정성과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을 차용하여 죽음충동의 징후를 부사구에서 찾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언어는 언제나 말해진 것 이상의 것을 품고 있다. 말은 완결된 문장이기 전에, 숨의 떨림, 입술의 망설임, 말의 가장자리에 남겨진 흔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신분석적 언어 연구는 주로 **명사·주어·기표와 같은 구조적 단위에 집중해 왔으며**, 발화에서 **무의식이 출현하는 ‘문장의 틈’, 곧 접속사, 감탄사, 종결어미, 중단(…) 과 같이 비본질적으로 보였던 언어층을 간과해왔다.**⁶⁾

현대 자살예방 담론은 신경생물학적 요인, 스트레스-심리 병리, 약물치료 중심의 정신의학 모델에 의해 장기간 지배해왔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자살을 ‘병리적 증상’으로 간주하며 약물·인지치료·자아심리학적 안정화 기법을 주요 개입으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자살충동을 단순히 신체적·병리적 반응으로 환원하는 기존 모델의 한계를 비판하고, **프로이트-라캉 정신분석의 충동(Trieb) 개념의 변증법적 차이**를 기반으로 자살충동을 언어적 구조의 붕괴로서의 충동으로 재위치시키고자 한다.

특히 라캉이 강조한 바와 같이 충동이 본능(Instinkt)이 아니라 기표의 우회·결여·지연 구조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사건이라면, 자살충동 또한 **언어적 붕괴가 낳는 행동화**(passage à l'acte)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자살예방의 근본적 개입이 약물이나 행동통

단절·폐색’으로 언어화된다. 야스퍼스는 인간이 절망·죄·투쟁·죽음이라는 ‘한계상황’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실존적으로 깨닫는다고 하였다. 자살 위기는 이 한계상황을 피하려는 시도이자, 동시에 **실존이 스스로를 초월하지 못하는 지점**이다. 즉, 자살은 한계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부정성 안에서 ‘초월 가능성’을 발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다. 샤이드먼은 자살을 “견딜 수 없는 심리적 고통(psychache)”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단순히 감정적 불쾌감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끊어진 고통”이다. 따라서 ‘Psychache’는 실존적 의미망의 붕괴를 정서적으로 느끼는 방식이며, 이는 하이에커의 ‘무의미의 심연’과 직접 연결된다. 이 세 이론은 공통적으로, 자살을 **‘삶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의 붕괴**로 본다. 따라서 자살예방은 ‘상황의 재해석’을 통해 실존적 구조를 다시 엮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5) 임병식(2025). 「실존정신언어분석과 부정성의 언어구조」, 『실존예술치료논문집』 참조

6)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말실수, 농담, 행위 착오로 나타난다고 했고, 라캉은 그것을 “기표의 미끄러짐”이라 명명했다. 하지만 그들이 주목한 것은 여전히 말의 ‘대상’이었지, 말의 태도(attitude)나 머뭇거림이 아니었다. 본 연구는 바로 이 간극에서 출발한다. 무의식은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에서 드러난다. 이 연구는 부사구를 비롯해서 접속사(하지만, 그런데), 감탄사(아…, 흠…), 종결어미(-거든, -잖아), 미완결 발화(…)까지를 포괄함으로써, 말의 주변부야말로 무의식이 가장 빈번하게 호흡하는 장소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발화 구조는 문법적으로는 주변부일지라도, 실존적으로는 중심이며, 논리적으로는 부차적일지라도, 무의식이 묻어나는 최전선이다. 무의식에 대한 언어학적 접근은 프로이트 이후 라캉을 거치며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명제로 집약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대부분은 기표(signifier), 은유(metaphor), 상징(symbol)과 같이 비교적 명시적 형태를 가진 언어 단위에 집중해 왔다. 반면 일상적 발화 속에서 무의식이 더 자주, 더 은밀하게 개입하는 영역-예를 들어, ‘왠지’, ‘사실은’, ‘가끔은’, ‘어쨌든’과 같은 부사구(adverbial phrase)-에 대한 심층 분석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제가 아니라 문장 구조의 복권, 즉 **발화의 회복**(passage à la parole)임을 주장한다.

II. 왜 하필 부사구인가?)-억압·부정성·부사구의 이상한 만남

억압된 무의식은 그대로 튀어나올 수 없다. 직접 말하면 불안, 죄책감, 수치, 관계 파괴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불안, 죄책감, 수치’ 감정은 모두 은폐(은닉)된 충동적 욕망이다. 그래서 무의식은 항상 “우회로”를 찾는다.

프로이트의 언어로 말하면, 부사구는 검열(censorship)을 통과하기 위한 **타협형성(compromise formation)**이며, 실존정신언어분석적 관점에서 보면 **부정성의 에너지가, 최소한의 저항으로 통과 가능한 통로를 찾는 것이다**. 이때 문장 안에서 주어·동사·목적어는 너무 의식적으로 나타난 “핵심적”이고, 부사구는 상대적으로 “주변적”이기에, 검열의 눈길이 덜 미치는 자리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험한 것, 그러나 완전히 숨길 수는 없는 것이 가장 먼저, 가장 쉽게 기어 나오는 자리가 바로 부사구다. 이것을 “경제적 효용”이라는 말로 풀면, **무의식은 최소 비용(불안, 죄책감, 관계 위험, 자아 손상)으로 최대한의 방출(표현, 회복, 치유 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형식을 선택하는데, 그 형식이 바로 부사구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심적 경제, 언어경제, 관계·윤리 경제로 나누어 더 깊게 살펴보자.

1. 심적 경제: 최소한의 폭발로 최대한의 방출을 얻는 형식

1) 억압된 에너지는 “조금씩 새고 싶어 한다” : 억압은 무의식적 에너지를 “0”으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는 곳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에너지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새어 나갈 구멍을 찾는다. 예컨대 불안, 죄책감, 관계 단절 위험이 아주 큰 상황에 처해 있는 내담자를 가정해보자. 이때 그가 정작 말하고 싶은 직접어는 “나 너무 죽고 싶다”, “엄청 화난다”이다. 그렇다고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완전 억압적 침묵), 내담자의 신체는 이내 두통, 불면, 공황의 증상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내담자 **무의식의 가장 경제적인 선택은, “조금은 말하고, 조금은 숨기는 형식”**이고, 부사구는 딱 이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그냥 좀 그렇네요.” “왠지 모르게 힘들어요.” “조금 괜찮아졌어요.”이다. 여기서 핵

7) 왜 ‘부사구’가 감성·정서 이해의 핵심인가? 부사구(adverbial phrase)는 언뜻 보면 문장의 부속(附屬) 요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서와 무의식의 흔적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자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이 아니라 “**감응의 방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명사구(noun phrase)는 ‘무엇’을 말하는가에 응집되는 반면, 부사구(adverbial phrase)는 ‘어떻게’, ‘왜’, ‘어떤 톤으로’ 말하는가를 드러낸다. 즉, 부사구는 정서의 양태, 감응의 방향성, 발화의 분위기를 실어 나르며 이것은 곧 무의식적 정서의 형식이다. 둘째는 **시간·공간·관계성의 지각을 노출한다**. 예를 들어, “조금”, “불현듯”, “마지못해”, “문득”, “고요히”, “스멀스멀”, “아무 말 없이” 이런 표현들은 사고의 논리 구조가 아니라 체화된 정서의 감각 구조에서 튀어나온다. 라캉이 말한 기표의 잉여성, 메로폰티가 말한 신체도식(schéma corporel)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점이다. 셋째, **부정성(negativity)-즉, 말할 수 없는 것의 그림자-가 스며 있는 자리다**. 부사구는 명시적 의미보다 결여·누락·비어있음·미묘함·주저함을 담기에, ‘부정성’의 철학과 죽음학의 핵심 개념이 가장 잘 파고드는 층위이기도 하다.

심 내용(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버티기 어렵다)은 명사·동사 자리에서 말해지지 않고, 그냥, 웬지, 조금, 그렇게 와 같은 부사구에서 “힘듦의 존재”만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새어 나온다.

2) 부사구는 “강도 조절”과 “책임 분산”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 심리적 경제라는 관점에서 부사구의 제일 큰 장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강도 조절이다. 예를 들어 “힘들어요” vs “조금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vs “가끔 그런 생각이 슬며시 들어요”와 같이 부사구 하나로 **정서 에너지의 강도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 둘째는 **책임 분산**이다. “나 죽고 싶어”는 말한 사람에게 전적인 책임이 붙지만 “그냥 요즘 좀 그렇네요”는 ‘내가 과장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냥 기분이 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말한 사람도 스스로 **발언의 심각도를 언제든지 조금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이는 무의식의 매우 매력적인 구조다. “**말하되, 언제든지 농담·기분 탓·가벼운 표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여지**” 이것이 바로 부사구가 제공하는 심적 경제성이다.

2. 언어경제: 문장 구조에서 가장 ‘싸게’ 쓸 수 있는 자리

1) 부사구는 삭제해도 문장이 부서지지 않는다 : 문장 구조상, 주어·동사·목적어는 **문장의 뼈대**다. 이 자리에 “위험한 내용”을 올리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반면, 부사구는 넣어도 되고 빼도 문장이 살아 있고 위치도 비교적 자유롭다. 예컨대 “요즘 힘들어요.”, “요즘 **조금** 힘들어요.”, “요즘 힘들어요, **그냥**.”, “**웬지** 요즘 힘들어요.”와 같이 부사구를 어떻게 넣든, 문장 전체의 정보 구조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즉 부사구는 “붙였다 떼어도 되는 값싼 부속품”처럼 기능하다. 그러나 무의식 입장에서는, “문장의 핵심 내용은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정서의 심부를 조금 흘려보낼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되는데, 이 요구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게 바로 부사구다.

2) 모호성의 경제성-정확히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 : 부사구는 대개 의미가 모호하고 다의적이다. 예를 들어, “그냥”은 ‘이유를 말하지 않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별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며, “웬지”는 ‘설명 불가능’, 혹은 ‘설명을 회피하는 심리’다. 또 “슬며시”는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조금씩’의 뜻이다. 이 모호성은 억압된 무의식에게 **이중의 이득**을 준다. 이는 ①**사실상 많이 말하지만, 겉으로는 적게 말한 것처럼 보이기**, ②**해석의 부담을 듣는 사람에게 떠넘기기**다. 예를 들어, “그냥 좀 그래요”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어디가 힘들까?” 하고 추론을 시작한다. 이때 발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정면으로 직면하지 않고도 **타자가 대신 자신의 심리 상태를 언어화해주는 구조**를 끌어낼 수 있다. 이 모호성은 **언어 치유의 초입부**에서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된다. 무의식은 “정확한 고백”이 아니라 “모호한 신호”의 방식으로 먼저 문을 연다. 그 통로가 부사구다.

3. 관계·윤리적 경제: 덜 싸우고, 덜 거절당하면서, 더 많이 말하기

1) 부사구는 “관계 파괴의 위험”을 낮추는 장치다 : 직설적 서술은 관계를 건드린다. 예를 들

어 다음의 문장을 보자.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vs“요즘, 당신이랑 이야기하면 **왠지** 모르게 좀 힘들어요.” 두 문장은 내용상 비슷하지만, **관계에 주는 충격은 완전히 다르다**. 부사구가 들어간 두 번째 말은 발화자의 **정서적 위험**(거절당할 두려움, 갈등 발생)을 낮추고, 듣는 사람에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완충 공간**을 제공한다. 즉, 부사구는 “**정서적 진실을 완전히 숨기지는 않으면서, 관계 파괴를 최소화하도록 조절해주는 대인 관계적 완충장치**”다.

2) “아닌 척 하면서, 사실은 SOS 치는” 구조 : 언어 치유 장면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죽고 싶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엄청 상처받은 건 아니고요, 조금 그때 말이 마음에 남기는 했어요.” 여기서 부사구는 **이중 메시지**를 전달한다. 전면에 나타난 메시지는 “심각한 건 아니다”라는 말로 상대를 안심시켜 갈등을 회피한다. 그러나 뒤에 숨겨진 메시지는 “사실 꽤 힘들다”라는 말로, 이는 조심스럽게 보내는 SOS다. 무의식은 이 이중 구조를 통해, “버림받지 않을 가능성”과 “정말로 이해받을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 한다. 이게 바로 관계·윤리적 경제성이다.

Ⅲ. 왜 ‘자살충동’의 징후가 부사구로 나타나는가?

기존의 정신분석적 언어 연구는 “무엇을 말했는가”에 집중한 나머지, “어떻게 말했는가”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고통과 충동은 명사적 진술보다 **부사적 머뭇거림**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괜찮다”는 말 앞에 붙은 “솔직히”, “가끔은”, “정말로”는 단순한 수식이 아니라, **검열을 뚫고 나온 무의식적 진술의 예비 문장**이다. 이처럼 부사구는 억압된 감정, 책임의 회피, 욕망의 축소, 내적 갈등의 흔적을 실어 나르는 심적 기제의 핵심 단서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탐구의 범주 밖에 머물러 있었다.

1. 무의식의 심리기제와 부사구의 친밀성

1) 무의식은 왜 부사구를 선택하는가 : 무의식은 언어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작동한다. 그것은 ‘말하지 못함’과 ‘말하지 않음’ 사이에서, 의미를 직접 지시하기보다 **회피하고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러한 특성은 문장의 핵심적 요소(명사, 서술어)가 아닌, 문법적 주변부(부사구, 접속사, 조사, 종결어미 등)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중에서도 부사구는 무의식의 정동적 변화를 가장 미세하게 반영하는 영역이다. 부사구는 의미를 한정하지 않으면서도 화자의 태도, 강도, 시간성, 가능성, 그리고 관계적 거리를 조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부사구는 무의식의 내적 에너지—즉 억압과 방어, 유예와 회피, 긴장과 완화—가 언어로 표면화되는 핵심 통로로 기능한다.

2) 무의식의 속성과 부사구의 언어적 친화성 : 무의식은 기본적으로 부정성(negativity), 가변성(variability), 그리고 전반성(pre-reflectivity)이라는 세 가지 속성을 지닌다. 첫째, 부정성은 말의 완결을 거부하는 힘이다. 무의식은 진술보다 침묵에 가깝고, 명확한 판단보다 미결정 상태를 선호한다. 부사구는 바로 이러한 부정성을 언어적 형식으로 수행한다. “가끔은”, “어쩐지”, “그냥”과 같은 부사구들은 단언을 회피하고, 말의 종결을 미루며, **완결 대신 유예의 공간**을 만든다. 둘째, 가변성은 무의식의 강도와 방향이 일정하지 않음을 뜻한다. 감정은 늘 흔들

리며, 화자는 그것을 언어적으로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 이때 부사구는 정동의 강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장치가 된다.

“조금”, “꽤”, “정말”, “너무” 등은 감정의 세기를 축소하거나 증폭시키며, 무의식의 진폭을 조절한다. 셋째, 전반성은 의식 이전 단계에서 이미 세계와 관계 맺고 있는 ‘몸의 의도성’을 의미한다. 이때 부사구는 그 몸의 움직임과 정동의 방향을 그대로 언어로 옮긴 흔적이다. “그냥”, “왠지”, “어쩐지”는 이유나 논리 이전에 몸이 먼저 반응한 결과로서의 말이다. 이 세 가지 속성은 모두 ‘명시적 의미’보다는 ‘태도적 뉘앙스’에 의존한다. 따라서 부사구는 무의식의 유동성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그 흔적을 전달할 수 있는 저항 없는 통로가 된다.

3) 심리기제의 작동과 부사구의 표면화 : 무의식의 작동은 항상 방어기제의 형태를 취한다. 프로이트가 제시한 억압, 전치, 부인, 투사, 합리화 등의 심리기제는 언어행위 속에서 구체적인 표현 전략으로 드러난다. 그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정동의 선도착**: 억압된 감정이나 상실감이 신체적 긴장, 호흡, 억양의 변화로 먼저 드러난다. ②**검열의 개입**: 직접적인 진술은 위험하다는 판단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면서, 말의 중심을 피해 주변부로 이동한다. ③**타협형성**: 완전한 고백과 완전한 침묵 사이에서 자아는 제3의 언어적 전략을 마련한다. ④**부사구의 선택**: 이때 선택되는 것이 부사구이다. 부사구는 의미를 완전히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말의 흐름을 유지시킬 수 있는 안전한 완충지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냥 힘들어요.”라는 문장에서 ‘그냥’은 고통의 원인을 삭제하며, 감정의 강도를 완화시킨다. “가끔은…”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정서의 지속성을 간헐적 현상으로 축소하여, 무의식적 불안을 관리한다. “사실은…”이라는 부사구는 고백의 문턱에서 자기검열을 통과한 파편을 표면화하는 타협의 흔적이다. 이처럼 부사구는 각기 다른 방어기제가 생성하는 정동 조절의 기제를 언어로 매개한다.

4) 부사구의 심리적 조절축 : 부사구는 심리적으로 다섯 가지 차원을 조정한다.

- ① 강도(Intensity): 감정의 세기를 증폭하거나 감쇠한다(정말, 조금).
- ② 책임(Agency): 행위의 주체를 흐리거나 외부로 전가한다(괜히, 어쩔 수 없이).
- ③ 시간성(Temporality): 고통을 지속적 사건에서 간헐적 경험으로 전치한다(가끔, 일단).
- ④ 가능성(Modality): 불확실성과 유예를 허용한다(아마, 혹시, 대충).
- ⑤ 거리(Relativity): 관계적 불안을 완충하며, 타자와의 심리적 간극을 조정한다(그렇잖아요?, 왠지).

이 다섯 축은 무의식의 감정 흐름을 정제하면서, 언어적으로 ‘안전한 발화’를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부사구는 무의식이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표현하고자 할 때 선택하는 언어적 자가조절 장치이다.

5) 발화의 주변부와 무의식의 친밀성 : 무의식은 중심이 아니라 주변에서 작동한다. 명사와 서술어는 판단과 인식의 중심에 속하지만, 무의식은 그 중심을 피해 발화의 가장자리(edge)에 머문다. 부사구는 이러한 주변성의 공간에 존재하며, 말의 리듬과 정동의 파형을 보존한 채

언어로 표출된다. 특히 부사구는 호흡의 길이, 억양의 굴곡, 멈춤과 연결되며, 이는 신체의 정동적 리듬과 직접적으로 결합한다. 따라서 부사구는 단순한 문법 단위가 아니라 무의식의 체화된 리듬이 언어로 침착된 결과이다. 이 점에서 부사구는 메를로-퐁티가 말한 ‘말하는 몸(le corps parlant)’, 즉 세계와 관계 맺으며 의미를 만들어내는 살아 있는 몸의 언어적 형상과 통한다.

6) 부사구는 무의식의 언어적 완충지대 : 결국 부사구는 무의식의 본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언어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부정성을 통해 고정과 완결을 거부하고, 가변성을 통해 강도를 조절하며, 전반성을 통해 신체의 감응을 언어화한다. 부사구는 고백과 침묵 사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작동하는 심리적 완충지대이다. 따라서 부사구를 분석하는 일은 단순한 문법 연구가 아니라, 무의식의 심리기제가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해명하는 실존적 연구이다. 실존정신언어분석(EPLA)은 이 지점을 통해, 무의식의 구조를 단순한 기호학적 체계가 아닌 체화된 언어행위의 윤리적 현상으로 확장한다. 부사구는 바로 그 윤리적 현상—즉 “말할 수 없음 속에서도 여전히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태도”—의 가장 구체적인 흔적이다.

Ⅲ. 언어치유 관점에서의 ‘경제적 효용’

이제 “왜 자살충동이 부사구를 선택하느냐”를 넘어, 치료자/언어치유자가 이 사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1. 부사구는 “안전한 진입로”다: 내용이 아니라 방식부터 묻기

내담자가 말할 때, 언어-치유자는 “무슨 일을 겪었나”보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를 먼저 듣는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요즘은 그냥 조금 괜찮아졌어요.”라고 말했다고 하자. 여기서 바로 사건 내용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방금 그냥, 조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그냥’과 ‘조금’ 속에 들어 있는 느낌이 어떤 건지 말로 옮기기 어렵다면, 이미지로나, 색깔로나 표현해 보실래요?” 이렇게 하면, 명사적 진단(우울증, 불안장애) 이전에 부사구에 실린 감응을 먼저 다루게 된다. 이때 내담자는 상대적으로 덜 방어적이고, 덜 위협적으로 느낀다.

2. “부사구를 다시 말해보기”는 아주 경제적인 치유 개입이다

언어치유에서 부사구는 작게 건드려도 크게 움직이는 레버다. 예를 들어, ①“그냥”을 “사실은 꽤”로 바꿔 말해보도록 한다. ②“조금”을 “꽤 많이” 혹은 “거의 대부분”으로 바꿔보며 몸의 느낌을 점검하도록 한다. ③“왠지”를 “지금 떠오르는 이유를 하나만 이야기해 본다면...”으로 내담자의 마음을 열어본다. 이는 핵심 사건(trauma)에는 직접 손을 대지 않으면서도, 정서의 강도·방향을 재조정하는 개입이 된다. 무의식에 있어서도 아주 ‘경제적’이다. 극단적인 폭로 없이도, 조금씩, 그러나 실질적인 재구성이 일어난다.

3. 부사구의 “치유적 변형”은 심리적 경제 구조 자체를 다시 짚는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초기 발화로, “그냥… 좀 그렇죠, 뭐. 웬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힘들긴 한데, 뭐, 다 그렇게 살잖아요.”라고 말했다고 하자. **치유적 과정에서**, 이 말은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다. ⇒ “그냥이라는 말 뒤에 사실 ‘꽤 많이 힘들고 외롭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직접 말하긴 겁나서 ‘웬지’라고 돌려 말했던 것 같고요. 지금 말해보니, ‘조금’이 아니라 ‘요즘의 대부분 시간이 힘든 쪽에 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실제로 바뀐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부사구의 구조, 즉 감정-부정성의 형식**이다. 그러나 이 형식 변화 자체가 이미 ①자아의 감정 인식 능력, ②타자에게 자신을 내맡기는 능력, ③자기-언어의 책임지기 능력 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치유적 재구조화**이다.

IV. 맺는말

우리가 처음 질문한 것을 다시 떠올려 보자. “**왜 억압적 무의식의 심리 기제(부정성)가 부사구로 나타나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심적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전부 말하면 위험하고 전혀 말하지 않으면 병이 되므로 부사구는 “조금 말하고, 조금 숨기는” 타협의 형식이다.

둘째, **언어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문장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정서의 강도·방향·시간성을 가장 싸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자리다.

셋째, **관계·윤리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타자에게 SOS를 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신호 형식이다.

넷째, **부정성의 형식**에서 보면, 명시적 부정과 완전 침묵 사이에서, “열려 있는 부정성”을 언어화하는 최적의 구조가 부사구다.

다섯째, **언어 치유적 효용**에서 보면, 치료자는 부사구를 따라가면서 억압된 정동을 우회적으로 다룰 수 있고 내담자는 큰 폭로 없이도, 부사구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자기 감정의 진실에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부사구는 문장 시작부 발화 빈도가 높아 정동 신호로 기능하기에 적합하다. 부사구는 발화 속도, 성대 긴장, 호흡 간격 등 음성학적 요소와 강하게 결부되어 무의식적 신호가 된다. 명사구는 대상화, 동사구는 행위화의 구조를 갖는데, 부사는 이 둘의 연결을 조율한다. 부사의 반복은 회피·우울의 병리적 고착 패턴과 연동된다.

부사구는 통계적으로 우울군·불안군에서 더 높은 빈도로 사용된다. 동사구의 부재는 행동화(acting out) 위험과 직접 연관된다. 명사구가 **고착**되면 우울·자기낙인(suicidal self-schema)이 강화된다. 부정적 시간부사가 반복되면 미래 지향능력이 급격히 약화된다. 부사구는 “말

이전의 말”이며, 주체는 이를 통해 타자와 최소한의 관계적 끈을 유지한다. 라캉의 ‘주이상스(jouissance)’는 종종 부사구의 파열적 형식에서 드러난다.

충동(Trieb)은 본능과 달리 언어적·기표적 구성물이며, “한 이미지 A가 다른 이미지 B로 번역되어 엮이는” 표상-번역의 회로다. 그러므로 자살 ‘충동’ 역시 신체-화학적 자극만이 아니라 언어의 실패·기표 연쇄의 붕괴·주체와 대타자(Other) 관계의 단절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사건으로 읽어야 하고, 예방 또한 언어적 개입—그중에서도 <부사구 → 동사화 → 서사화>의 회로를 다시 만들어야 근본적인 해결점이 나타난다.

충동은 언어가 끊기면 행동으로 떨어지고, 언어가 회복되면 행동도 멈춘다. 즉 본능은 약물로 조정될 수 있지만, 충동은 언어로 조정된다. 즉 “부사구를 동사화·서사화하여 주체를 복권시키는 과정으로 자살예방을 한다”는 단순한 상담 기술이 아니라, 라캉의 충동 개념 전체를 정확히 임상으로 옮긴 것이다. 이 관점은 기존의 병리학적·약물중심 자살예방 패러다임을 전복하는 하나의 새로운 임상철학이다.

자살 위기자의 부사적 발화는 생존의 마지막 언어적 지지대다. “그냥”은 한국어에서 정동의 무게를 완충하는 대표적 언어적 장치다. “왓지/괜히”는 무의식의 ‘설명 불가능성’ 자체를 기표로 나타낸다. 죽음학에서 부정성은 단순한 결여가 아니라 생성적 잠재성이 있는 열린 공간이다. 부사구의 떨림은 존재론적 불안을 가장 빠르게 드러낸다. 따라서 부사구에서 자살충동의 기미와 예후를 찾을 수 있다면, 생명존중 자살예방프로그램의 가능성은 한층 깊어질 것이다.

“부사구는 무의식의 진동으로 명사·동사를 흔들고, 명사·동사는 의식의 무게로 부사구를 다시 호출하며, 그 양방향의 흔들림을 통해 본래의 자기다움으로 회귀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 언어의 ‘실존적 진실’이다.”(임 병식)